



가축유전자원 확보 및 신소재 개발 연구(15)-동물유전자원 보존 평가기술 개발(52)

우리나라 가축유전자원 국가주권 확보 및 지속추진 [Sustainable Management for Animal Genetic Resources in Korean]

담당자 :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창연, 063-620-3520, bloodtype@korea.kr

□ 요약

- 국립축산과학원은 세계식량농업기구(FAO) 식량농업유전자원위원회(CGRFA)의 동물유전자원 국가조정관기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
 - 제2차 세계가축유전자원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조사된 가축유전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세계행동계획 이행정도에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14위의 성적을 거두었음
- 2015년도 국립축산과학원은 국내에서 개량된 돼지 8품종을 FAO 가축유전자원다양성시스템에 등재하여 국내 육종가를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

□ 연구성과의 핵심은?

- 2007년도 가축유전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세계행동계획을 151개 국가 및 국제기구가 채택하였음
- 2014년도 FAO회원국의 가축유전자원의 세계행동계획 이행 정도를 평가하여 2015년도 발표하였음

우리나라는 평가대상국 127개국 중 14위를 하였습니다.
AFACI, KAFACI와 같은 국제협력분야에서 양호한 성적을 보였음

- 가축유전자원은 식물과 같이 신품종을 인정하고 육성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
- FAO의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자국의 자원을 등재하는 것이 자원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

우리나라는 2007년도부터 FAO 가축유전자원정보시스템에 국내고유종 및 육성종을 등재하였습니다. 2015년도에는 국내에서 육성된 돼지 9계통을 등재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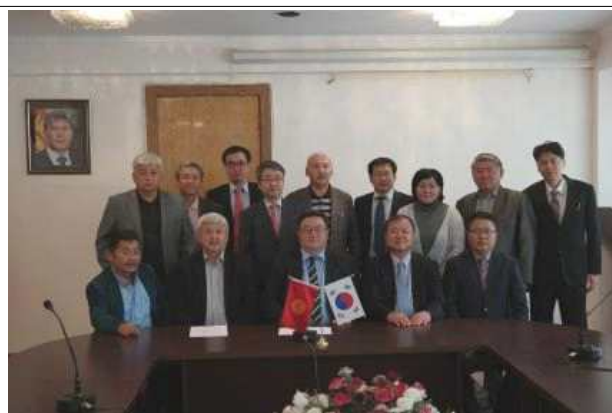
□ 이렇게 활용됩니다

국제쟁점의 선제적 대응을 통한 국익보호

- 가축유전자원관리 기법의 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을 역할을 하면서 국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음

FAO를 통한 국내 가축생명자원의 대외 공표

- 국내에서 개발·육성된 품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제사회에 알림으로서 품종 및 육종가를 보호할 수 있음



<키르기스스탄 농업분야지 현장지원>



KAFACI 연례평가회 (2015.12, 에티오피아)